

호랑이, 거인에 홈런 2방 맞고 3-6 역전패



이번에도 5회를 넘지 못하며 2승4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6으로 패하며 위닝 시리즈를 내줬다. 주중 넥센에 이어 주말 롯데와의 승부에서도 1승씩을 챙기는데 그치며 적자 살림은 계속됐다.

선발 싸움에서 또 밀렸다.

선취점은 KIA가 뽑았다. 2회말 1사에서 이범호가 좌중간을 넘기는 솔로포로 선제공격을 했다. 그러나 선발 임준섭이 3회 1사에서 전준우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1-3의 위기를 맞았다. 이어 전준우의 도루 때 포수 차일목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3루에 있던 문규현이 홈을 밟았다. 톱타자 이승화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기는 했지만 정훈의 3루타와 손아섭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1-3이 됐다.

4회 2사에서 우측 담장 넘어가는 강민호의 솔로포로 4번째 점수를 내준 임준섭은 5회 2사에서 손아섭을 볼넷으로 출루시킨 뒤 서재응과 교체됐다.

최근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세 번이나 선발이 조기 관판됐다. 9일 넥센전에서 박경태가 1.2이닝을 막는데 그쳤고, 11일에는 믿었던 송은범이 2.2이닝 만에 막아웃으로 향했다. 홀튼과 양현종이 7이닝을 책임지며 분전했지만 톨러코스터 선발이었다. 52이닝에서 선발이 담당할 부분은 28.1이닝에 불과했다.

기싸움에서 번번이 밀리면서 타자들과 볼펜의 부담은 가중됐다. 11일 롯데전에서는 나지완의 홈런 포함 타자들이 13개의 안타로 8점을 만들어냈지만 선발 송은범의 붕괴 속에 8-20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선발 일찌감치 무너져

기싸움에 밀려

6경기 36점 뺏고도

2승 4패 부진

광주 진흥고 출신

임창용·하영민 승리에 한숨만

타자들이 6경기에서 만든 점수는 36점. 투·타의 불균형 속에서 번번이 추격에서만 끝나고 있다. 13일에도 실점 이후 득점, 다시 실점의 패턴이 계속되면서 승부를 뒤집는데 실패했다.

결국 불펜에 선발 고민까지 더해진 KIA는 1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한승혁을 선발로 이동시키는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KIA가 '마운드 고민'에 빠진 13일 대구와 대전 마운드에서는 진흥고 출신의 두 선수가 의미 있는 승리를 챙겼다.

돌아온 수호신 임창용(삼성)이 7년 만의 국내 복귀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다. SK와의 경기에서 8-8로 맞선 8회 1사 만루에 등판한 임창용은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경기가 10-9 역전승으로 끝나면서 2408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진흥고를 갓 졸업한 넥센 신인 하영민도 거침없는 투구로 김태형(롯데·1991년), 김진우(KIA·2002년), 류현진(한화·2006년)과 임지섭(LG·2014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둔 고졸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하영민은 이날 5이닝 3피안타 2볼넷 1실점의 호투로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7회초에 등판한 KIA 투수 박정태가 선두타자로 나선 롯데 전준우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고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핵잠수함’ 김병현, 고향 팀에서 새 향해

KIA 45번 유니폼 입고

2군에서 컨디션 조절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

최고라는 자신감 갖고 경기”

고향으로 돌아온 ‘핵잠수함’의 새로운 향해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투수 김병현이 13일 새 팀에서 첫 훈련을 가졌다. 김병현은 이날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45번이 새겨진 새 유니폼을 입고 KIA 선수로서의 ‘진짜 일장’을 시작했다.

김병현은 트레이드 다음날인 11일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 선동열 감독을 비롯한 KIA 선수단과 만남을 가졌다. 하루 휴식 뒤 그라운드로 복귀한 베테랑 김병현은 후배들에게 미래가 아닌 현재를 얘기했다.

함평 선수단 앞에 선 김병현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하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최고라는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하자” 당부했다.

김병현은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2군 선수단과 훈련을 하며 1군 마운드 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투기 김지환과의 캐치볼로 몸을 풀 김병현은 불펜 피칭까지 소화했다. 다양한 구종을 테스트 하며 80개의 공을 던졌다. “그만



김병현

던져도 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팔 상체는 괜찮다. 던질수록 감이 괜찮아 지는 것 같다”며 예정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공을 던졌다.

자신의 고민대로 100%의 피칭은 아니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고향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슬픈 이야기인데”라며 말문을 열었던 김병현은 “옛날의 나는 잊어버리고 못하더라도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다.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유있게 봐주시면 나도 차분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캠프에서 입었던 햄스트링 부상 여파 등으로 만족스러운 투구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구도 다소 불안했다.

하지만 “원래 썼던 말투 익숙한 환경이 나를 좀 더 차분하게 만들 것 같다.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던 자신의 얘기처럼 전력을 다한 피칭 속에서도 김병현의 얼굴은 밝았다.

김병현은 “야구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것 같다. 특별한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첫 훈련을 소화했다. 내 것을 찾는 중이다. 오늘은 몸을 푸는 단계였다. 한 이닝 한 타자라도 자신있게 상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1군에 합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현은 15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LG와의 퓨처스리그 원정경기에 동행해 실전 피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독특

△“감독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더 열심히 던졌습니다.”

7이닝2피안타4볼넷8탈삼진무실점. 12일 양현종은 전날 24개의 안타를 뽑아낸 롯데 타선을 잠재우고 승리 투수가 됐다. 3연패를 끊어낸 에이스는 “그동안 죄송스러웠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 대상은 상대 벤치에 앉아있던 롯데 김시진 감독. 양현종은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당시 대표팀 투수 코치였던 김 감독에게 커터를 전수받았다.

공교롭게도 이후 어깨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마음이 편치 않던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어깨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부진한 것이었는데 커터를 배워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감독님께 죄송했습니다.

류현진 시즌 2승 패투

추신수는 5연타석 삼진 수모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일주 전 최악의 부진을 만회하는 호투로 시즌 2승째를 거뒀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에서 시즌 네 번째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8탈삼진을 기록하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가 6-0으로 앞선 8회말 수비 때

한기주, 재할 잘 되느냐 묻자 “가을야구 해야죠”

커터 그림으로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슬라이더를 더 열심히 던졌다”고 말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혼신을 다해 피칭을 한 양현종. 덕분에 패장이 된 김시진 감독이었다. 13일 양현종의 얘기를 전해들은 김시진 감독은 ‘아빠 미소’로 화답을 했다. “리플레이로 다시 봤는데 어휴. 투수가 좋아진다면 좋은 것 아닌가”라며 패배를 안겨준 적이자 자랑스런 후배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가을 야구 해야죠.”

12일 챔피언스 필드에 ‘반가운 얼굴’ 투수 한기주가 찾았다. 서울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한기주에게는 첫 챔피언스 필드 방문. 낯선 구장에서 길을 헤매기도 한 한

기주는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관중이 되어 KIA와 롯데의 경기를 지켜봤다.

“팬들 야구 보시기에 최고인 것 같다”고 경기장을 둘러 본 소감을 밝힌 한기주는 재할 상황을 묻는 질문에 “가을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주의 가을 야구는 ‘가을 캠프’다. 한기주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캐치볼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다. 공을 던지고 프로그램에 따라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쉬는 패턴으로 조절을 하면서 완벽하게 몸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그래서 가을 마무리 캠프에 참여하는 게 목표다. 나의 가을야구를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제이미 라이트와 교체된 류현진은 팀이 리드를 끝까지 지켜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서 2이닝 동안 무려 8실점(6자책)하는 난조로 패배를 떠안은 류현진은 올 시즌 첫 승 상대인 애리조나와 재대결에서 자존심을 되찾고 두 번째 승리까지 챙겼다.

특히 올 시즌 세 차례 원정경기에서 19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86에서 2.57로 뚝 떨어졌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는 13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5연타석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의 타율은 0.353에서 0.308(39타수 12안타)로, 출루율은 0.500에서 0.451로 뚝 떨어졌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